

## 태안 첫 홍보대사로 포크송 원조 가수 박인희 위촉

등록 2024.07.02 10:09:24



[태안=뉴시스] 2일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포크송 원조가수 박인희(왼쪽)가 태안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가세로 군수와 꽃다발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4.07.02.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충남=뉴시스]김덕진 기자 = 우리나라 포크송의 원조 가수 박인희(79)가 2일 태안군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태안 홍보대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군은 군청 대강당에서 군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갖고 가수 박인희를 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인희는 1969년 그룹 '뚜아 에 모아(Toi et Moi)'로 데뷔해 당시로는 드물게 남녀 혼성그룹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1970년 발매된 2집 앨범 타이틀곡 '그리운 사람끼리(박인희 작사·작곡)'는 국내 여성 포크가수가 발표한 최초의 창작곡으로 기록됐다.

이후 1971년 TBC가요대상 중창단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동아방송 '3시의 다이얼' KBS '안녕하세요, 박인희입니다' 등 라디오 진행자로도 활약했다.

대표곡은 '모닥불' '그리운 사람끼리' '하얀조가비' 등이 있으며 올해 6월에 연세대학교에서 단독 콘서트를 갖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인희는 지난 4월 태안공감콘서트에 출연해 따뜻한 목소리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태안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박인희는 "공연에 성원해 주신 태안군민들에 깊은 감동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홍보대사직을 수락했다"며 "앞으로 태안의 발전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안군, 그리고 6만여 군민 여러분이 앞으로의 제 음악 인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태안군 홍보대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언제 어디서나 태안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세로 군수는 "국내 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박인희님을 태안군 홍보대사로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며 "박인희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군을 위해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